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

### 복음의 진정한 열매 (마 5:13-16)

### The Truthful Fruit of the Gospel (Matt. 5:13-16)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때로는 더딜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 거듭나게 된 사람의 진정한 열매는 매일의 삶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fter Jesus spoke of the Beatitudes, He also gave us a wonderful word concerning our status. It is that we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earth.

It says in Mathew 5:13-14,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of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Jesus tells us, “You will not become the salt and light but we already are the salt and light. Here, ‘you’ means that it is not the people of the world but the Christians.

The Christians must be bom again. “Rebirth” means that we must live our life with the new view of the world, the value of life, and the new purpose of life. If our spirits are bom again, we will be the poor in spirit, those who moun, the meek, and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Those people need not to desire to be the salt and light, because they already are the salt and light.

The lives that are bom again must grow. Though it will be late in one’s life to grow, little by little every day, we grow and mature to be like Christ. That is to say, the truthful fruit of those who receive the gospel and are bom again, is to be able to fulfill the role of being the salt and light in the midst of their everyday life.

1. 소금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곡식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레2:13). 이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1. Salt

Salt is an everyday necessity in all ages. Without the salt, we cannot preserve from decay, and we cannot taste certain things. In the Bible, when people gave offerings to God, the salt was a very essential element. Even when they gave the powdered grain offerings to God, they had to add salt to all their offerings (Lev. 2:13). Because the salt preserves from decay, this means that we give the vow of the unchangeable covenant to God with our pure heart.

2. 빛

빛은 다음의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과 같은 자연의 빛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만들어 낸 등불이나 전기와 같은 빛입니다. 셋째는 정신적인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심은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 이 세상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어 이 세상은 편해져야 하며, 우리가 있어 건강한 정신세계가 구축되고, 우리가 있어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진정한 밝음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Light

Light can be explained in four ways.

The first is natural light that comes from the sun. The second is the light that people produce such as light from a light bulb. The third is mental light. The final is spiritual light. It is God’s light that lights the world darkened by sin. Jesus’ word, “You are the light of the earth,” means that we must be able to fulfill the light’s role of these four ways. As long as we exist, we must be a vital power to the world, feel important to the world, and gain a strong healthy spirit in the world. Because of our existence, the darkness of sin disappears, and the real light is to shine.

Though all of these lights a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one is God’s light that shines upon the darkness of s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어둠이란 위험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역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The world is full of darkness. The darkness is dangerous and it ultimately means death. We are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While living in the word, we are the people who are called to carry out the mission of the Gospel. We are not the people who tum our back on the world but we are God’s people who go into the world and exercise our divine influence on it. By carrying out the calling of being light and salt, and extending the Kingdom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workers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성탄절예배

성탄축하찬양예배 - 18일(주) 오후5시, 임마누엘찬양대

성탄 전야 축제 - 24일(토) 오후7시

성탄절 새벽예배 - 25일(주) 새벽5시

성탄절 감사예배 - 25일(주)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20분/ 3부:오후2시

성탄절 찬양예배 - 25일(주) 오후5시

성탄절기를 맞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1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일(토)에는 성탄전야축제를 오후7시부터 본당에서 갖는다. 성탄전야축제는 어린이찬양예배부(핸드벨), 중등부(합창), 유년부(엔젤스), 사랑부, 고등부, 오카리나 연주, 초등부(글로리아), 대학부, 플룻/클라리넷 연주, 청년부(웹시바),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유치부, 유아부 순서

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모든 참가부서가 연합으로 성탄 찬양을 드린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감사예배는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드리며, 성탄절 찬양예배도 평상시와 같이 오후5시에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 송구영신예배

2012년 1월1일 0시 - 본당

2012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1일 0시 본당에서 드려진다.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송년음악회가 진행된 후,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동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된다. 송구

영신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30분 소동이 되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송구영신예배를 인터넷(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seoulchurch.or.kr> 메인화면)→송구영신예배 생중계)으로 예배 참여가 가능하니 해외에 있는 성도들처럼 파지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2012년 청지기수련회

1월2일(월)-7일(토) 새벽5시 본당에서

2012년도 청지기수련회가 1월2일(월)부터 7일(토)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오전 5시부터 5시45분까지 박노철 담임목사의 설교로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며, 5시50분부터 6시20분까지 매

일 각 위원회별로 지도 교역자의 인도로 청지기수련회가 진행된다.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 다락방 리더 훈련 및 다락방 모임 겨울방학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다락방 리더 훈련을 12월 21일(수) 종강하며, 2012년 2월 1일(수)에 개강한다. 따라서 다락방 모임은 12월 23일(금) 종강하며, 2월 3일(금) 개강모임을 갖는다.

# 2012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모집

후원자 접수 - 사무국

2012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 10만원이다. (1/2구좌도 가능)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있다. Vision2020 운동 후원금은 장병1인 세례경비(1구좌 5,000원 2구좌 10,000원)를 후원하는 것이다.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으로 한 구좌를 10만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1구좌를 5,000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2]

(문 29)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과 같은 거짓말(창31)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대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라반은 야곱의 강한 항의를 받고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인 야곱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도망간 라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라헬은 길르앗산 사건 얼마 되지 않아 베나민을 생산하다가 죽었습니다.(창35:16-19) 그리고 거짓말로 많은 이들을 속인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고 아내도 바꾸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개된 바 있었습니다.(창31:4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양떼의 수를 늘려주셨고(창31:12)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의 원망은 야곱이 자기를 떠나려했다면 왜 계획을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리했더라면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창31:31)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창31:1) 그리고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창31:2)

결국 이런 이유로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도망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출발을 결코 격려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 사이에 있었던 적개심은 그들을 평안히 헤어지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쳤다는 것은 속임수와는 다른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질문에 침묵으로 대하신 바 있습니다.(눅23:9) 그 결과 헤롯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오히려 빼어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난 것은 속인 것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끝내 라반의 집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창28:15)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실에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 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심지어 불완전할지라도 의롭고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 신임 교역자 부임

박다형 전도사



우리 교회 유치부와 어린이수요예배를 담당할 교육전도사로 박다형 전도사가 지난 주일(12월 11일) 부임하였다. 박다형 전도사는 1986년생으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성악)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 지난 1년 감사드립니다

##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김예환 권사(제1권사회 회장)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연합한 저는 제1권사회 회장으로 부름 받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난히도 많았던 교회 행사로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사명 앞에 연합해 질 때 두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돌아주시신 임역원 여러분, 성찬식을 위하여 전날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당일 새벽을 깨우고 밤늦도록 정리하면서 기쁨의 인사 나누기를 네 번, 다섯 번의 진중세례식 준비를 위하여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묵묵히 참여해 주신 성례위원 여러분, ‘김치세미나 행사’ 때

식사 섬김에 헌신하신 권사님들, 70세를 넘기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정성스레 모시도록 강조하신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섬겼던 일들, 슬픈 일 당하여 눈물 흘리는 교우들 위로에 앞장섰던 권사님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 곳곳일을 찾아 몸소 뛰어주신 권사님들,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Vision 2020 운동을 이끄시는 이갑진 장로님을 필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연 인원 2,000명이 넘는 젊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제자 되었음을 선포할 때의 크나큰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로 앞서서 이끌어 주신 전도사님,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신 회원 권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도 더욱 보람되고 알찬 믿음의 제1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최미아 권사(제2권사회 회장)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종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돌아보니 무익한 종이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필요에 따라 환경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채우시어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더 열심을 내어 섬기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권사를 들어 쓰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여종을 도와 목회자세미나와 교회를 기쁘게 섬기신 임역원과 모든 권사회원들, 끝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전도사님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12년에도 새로운 회장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제 2권사회가 되도록 늘 기도로 돕겠습니다.

## 용기와 지혜 주신 주님께 감사

오지열 집사(제2스데반회 회장)



회장직을 임명 받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 여러날 새벽기도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총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감회의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켜보면 2011년도의 제2스데반의 목표를 교회의 방침에 잘 순응하면서 전도와 친교와 무엇보다 웃어른의 공경을 잘 해보자고 세웠습니다.

1월달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 60세이하 모든 선교회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으로, 2월 처사대회, 3월 스데반 연합수련회와 지하 주차장청소, 4월 청계산 산상예배, 5월 기도회겸 월례회, 6월 웃어른의 공경을 위한 사랑의 대 잔치 그리고 흥해작전의 찬양순서와 적극적인 참여, 7월 부동산 특강, 8월 아버지학교 특강, 9월 금요기도회 특별찬양 겸 월례회, 10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초청한 제1,2스데반회 체육대회, 11월 사명자대회의 새벽시간 릴레이 기도 담당 등 매월 각기 다른 행사를 계획하여 세운 목표에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일 찬양예배의 기도순서의 담당, 식당청소, 노방전도, 주차장 관리, 장례 운구, 각종 경조사 참여 등등 여러 곳에서 끊임 없이 수고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스데반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큰 힘을 얻었고 특히 지도목사님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문건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2011년도에 저의 부족한 모든 점을 저희 임역원들이 잘 감당하게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2012년도의 새로운 임역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시어 더 많은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칸타타

# 소망이신 아기 예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속에 들어오신 기적의 사건이며,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은총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높고 귀한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마굿간에 오신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겸손의 발현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하고자 “소망이신 아기예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뜻한 위로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부장 최 학 인 장로

성탄축하찬양예배와 찬양대 헌신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수요1부예배 후 12시~3시까지

우리교회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제1권사회(회장 : 남태순 권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1부예배 후 12시~3시까지 운영한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목회자신학세미나 참석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운영되어 아가페타운 건축헌금으로 2011년도 수익금 8백만원을 현금한 바 있다.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지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아가페타운 건축헌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안내

**초급반 - 주일오후 1시-2시 / 중급반 - 주일오후 4시-4시 50분 606호**

에바다부 수화교실이 내년 1월8일(주)부터 개강하여 6월 10일(주) 까지 6개월간 진행 된다. 수화초급반과 중급반 2개 과목이 개설되며 초급반은 주일 오후 1시 606호에서, 중급반은 주일 오후 4시 606호에서 각각 개강한다. 강사는 임규현 목사, 김영주 집사이며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 2011년 12월 학습·세례식 여행

**지난 12월 14일 수요 1,2부 예배시**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4일 수요 1,2부 예배시 2011년 여섯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 1,2부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배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 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곽진호 김철주 박상기 박희욱 방지은1 양정훈1 유지성 정 솔정연대 차재은 계 10명
- <개종자> 민승기 계 1명
- <입교자> 김만성 김성경 김종민 박지희2 서정웅 오원주 오현근 전미경1 전미정 최희연 한동주 계 11명
- <학습자> 갈수룩행복 김가순 김동우2 김미숙7 김선남 김일두 김정훈1 박은주 박장군 송은주 송희경 심진보 유영순3 이성기3 이은재 이주하 이지은15 전민자 정민식 정성희1 정진희1 정하은1 최지훈2 황성희1 계 24명
- <유아세례자> 김 울 박서연4 박소울 장무이 계 4명 총 50명

# 12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12독) : (5교구) 이윤영 권사
- (5독) : (3교구) 윤은 권사 (6교구)김희진 권사 (9교구) 조명녀 권사
- (3독) : (1교구) 류장렬 집사 (6교구) 강영순 권사
- (2독) : (1교구)조순엽 권사 (6교구) 엄정순 권사 (8교구)채택희 권사 임윤자 권사 (10교구) 김경희7 권사 (11교구)김태욱 성도 (12교구) 이안순 권사 (13교구)김수정 집사
- (1독) : (2교구) 김미자 권사 정유선 권사 (3교구) 송동선 권사 (5교구) 김사라 권사 (6교구) 하정자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1교구) 김정자 성도 (12교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13교구) 김동진 집사 이금순 권사 이영임 집사 이정희 집사 최금봉 권사 (14교구) 강혜주 성도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19일(월) 서울장신대학교 이번 학기 종강을 한다. 22일(목) 미려한국 북한구원운동 송년의 밤에서 설교한다.
- 수상 : 11교구 윤석원 집사 대통령산업포장
- 득녀 : 12교구 김성호집사 임지혜 성도
- 이사 : 6교구 김숙자 권사 옥종호 집사 손지희 집사 양천구 신정3동 이편하우스 403동 102호  
6교구 채영순 성도 양천구 신정3동 이편하우스 306동 601호  
12교구 노영숙 권사 분당구 금곡동 305-2 헤리티지아파트 108동 101호 TEL. 031)717-5618

##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 11일 찬양예배 시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부장:김성준집사, 지휘 : 송재일 집사)가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12.18) 한나전도회(12.25)
- 금주의 식사 : 최학인 장로 최소희 권사 가정 신문식 성도 전희정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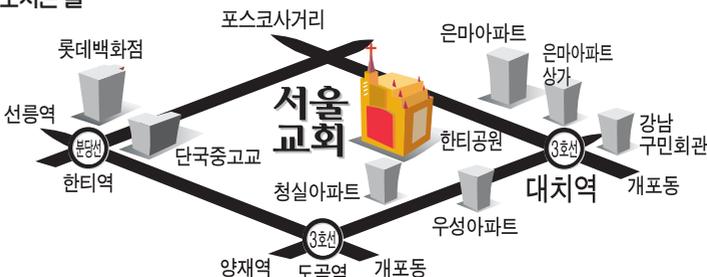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탄절 축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임하도록
2. 우리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3. 방학에 들어가는 다락방 모임이 더욱 아름답게 준비되어 예수님이 꿈꾸셨던 소그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